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 344-21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주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3월 3일 금요일 (음 2월 6일)

제1758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이전 환영식

2일 전북혁신도시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청사에서 송하진 도지사와 김승수 전주시장, 강면옥 기금운용본부 본부장이 신사육을 둘러보고 있다. (관련기사 2면)

도, 전주 중앙상가·남원 용남시장·완주 봉동시장

골목형시장 현대식 시설로 재탄생

중앙상가, 낙후된 이미지 탈피... 폐백 테마 복합문화공간 등 내세워
용남시장, 용남빵 특화상품으로 개발 건어물 특화거리·푸드코트 조성
봉동시장, 생강을 테마로 설정 프리마켓 운영... 모바일 마케팅도 벌여

지난해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을 추진한 전주중앙상가와 남원용남시장, 완주봉동시장이 사업을 완료하고 손님 맞기에 여념이 없다. 전북중기청에 따르면 지난해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을 추진한 전주중앙상가, 남원용남시장, 완주봉동시장이 지난 28일 사업 완료보고회를 갖고 사업이 마무리 돼 성과를 통해 새단장한 모습에서 매력 넘치고 경쟁력 있는 시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들 3개 시장은 중소기업청의 전통시장 지원사업 전국단위 공모사업인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후, 지난해 9월부터 6개월간 총 사업비 25억원이 투입돼 6개 분야에서 전통시장 특성화사업 과업수행이 추

진됐다. 전주중앙상가는 건물 외관으로부터 오는 낙후된 이미지를 외벽 도색 작업과 신규 내외부 안내판 설치 등으로 깨끗한 시장으로 변모시키고, 폐백 테마 복합문화공간 및 특화거리를 조성했다. 또한, 전통예복을 입은 신랑 신부를 시장 캐릭터로 정해 혼수·폐백과 연계한 상품개발 및 각종 사업을 진행했고, 복합문화공간에서 폐백상품 소개와 체험 프로 진행으로 즐길거리를 제공하게 됐다. 남원용남시장은 특화상품으로 남원용남빵을 신규 개발하고, 건어물 특화거리를 조성했으며, 상징조형물·공공벽화 및 시장내부 조형 개선 등 시장

환경 이미지 개선 사업을 진행했다. 또한, 시장내 먹거리 점포 확보를 위한 푸드코트를 조성해 베이커리 및 국수전문점을 유치했으며, 시장축제·특화장터운영 및 홍보영상 제작 등을 통해 시장 홍보에 심혈을 기울였다. 특히, 이번 사업의 집중 홍보 영향으로 남원용남시장은 오는 10일 KBS의 '6시 내고향' 프로그램에도 방영 예정이다. 완주봉동시장은 생강을 테마로 설정해 시장환경 개선과 공동간판 및 공동판매장 조성, 그리고 공동기획상품개발과 프리마켓을 운영하고, 협동조합과 상인교육 및 생강테마 축제를 개최했다. 또한, 상가별 개성 있는 이야기를 만

영한 스토리보드 설치로 재미와 볼거리 제공 및 차별성이 부각되도록 했고, 시장홍보 광고 제작 및 모바일 마케팅으로 시장의 대외 인지도 상승을 이끌었다. 전북중기청 정원탁 청장은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은 과업완료 후가 더 기대되는 사업으로, 이들 시장들이 본 사업을 통해 매력적인 주민친화형 시장으로 거듭나고, 방문객 및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또한, 우리청은 현재 2017년도도 전북지역에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에 많은 지역 전통시장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인재용 기자 "토·일요일 신문 읽니다. 매일 INDEX 3면 - 특검·현재 협박은 테러 예해당"

전북에서 제주로 출장갈때 도민 72.8% 광주공항 이용

도의회 박재만 의원 "군산공항 활성화 대책마져 미흡"

최근 2년 동안 군산공항 이용객이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도민들은 여전히 제주 출장이나 여행시 군산공항보다 광주공항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의회 박재만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청과 도교육청 직원들의 최근 3년 간 공무상 제주도 출장시 이용 교통편 실태를 도의회가 조사해본 결과, 전체 출장인원 1,995명 중 이 가운데 출발시 군산공항을 이용한 인원은 376명으로 19%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결과를 보인 반면에 광주공항 이용객은 1,452명으로 전체의 72.8%에 달할 정도로 이용률이 높았다. 반대로 도착 시에는 군산공항 이용률이 30.8%로 출발시점보다는 높아지긴 했지만 광주공항 54.7%와는 차이가 커 전체적으로 도내 공항이 이용률은 25%에도 못 미칠 정도로 부진을 면치 못했다. 또한 박재만 의원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생의 제주도 수학여행 시에는 이러한 차이가 더욱 현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다녀온 도내 초중고생과 인솔교사 3만2,679명 중 군산공항 이용률은 출

도, 올 지방공무원 729명 선발한다

전북도는 2일 '2017년도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 2017년도 일반직 공무원 선발예정인원 선발 예정인원은 통상 1년~1년 6개월 기간의 퇴직으로 인원 결원발생과 조직개편 등으로 인한 정원 증감 등의 예상결원 등을 토대로 산정은 총 729명이다. 지역별 채용규모를 살펴보면 전주(94명)와 군산(92명), 익산(77명)의 채용인원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완주, 김제, 정읍, 고창 순이며, 채용인원이 가장 적은 지역은 진안(3명)이다. 진안 지역의 경우 2016년 채용당시 2년간의 예상 결원인원을 한꺼번에 채용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직렬·직류 및 직급별 채용규모를 보면 총 29개 직렬, 43개 직류에서 7급 12명, 8급 24명, 9급 652명, 지도사 28명, 연구사 13명 등이다. 사회적 소외계층 공직진출기회 확대를 위해 장애인 37명, 저소득층 33명, 기술계고(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 11명을 구분 모집한다. 전체 선발예정인원과 비교해 장애인은 5.1%, 저소득층은 4.5%수준이다. 이는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에 따른 정부권고수준인 장애인 3.5%이상, 저소득층 2%이상을 상회하고 있는 수준이다. /인재용 기자

장수물
www.장수물.com
NAVER 장수물 검색
Tel. 063)350-5448